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우연성의 수용을 통한 한계인식에서 구현되는 작업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문 서 진

우연성의 수용을 통한
한계인식에서 구현되는 작업 연구

지도교수 권 대 훈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문 서 진

문서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위 원 장 오 귀 원 (인)

부위원장 이 용 덕 (인)

위 원 이 종 건 (인)

초 록

본 연구의 작업들은 작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우연적인 것을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본인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작업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가져오는 '수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이 하는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기 보다는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져오는 것이라 보았다. 작업에서 수집의 대상은 주로 이미 존재하는 물리적 사실이나, 자연 법칙에 의한 현상, 또는 어떠한 환경의 풍경이 되었다.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러한 현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좀 더 복잡하고 확대된 우연성을 작업에 부여하고자, 스튜디오를 벗어난 외부의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작업 과정을 우연적인 것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보았지만, 점차 이러한 우연 자체가 본인의 의도 하에서 나오게 되는 측면을 의식하게 되었다. 작업 과정은 물질이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우연함에 의해 작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본인이 이러한 우연을 경험하고 체득하여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제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연적인 요소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 줌과 동시에, 작업을 모색하는 가능성이 되어주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작업 과정 안에서, 우연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수용하려는 의도 간

에 발생하는 충돌 역시 받아들이는 태도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충돌과 갈등이 본인에게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본인의 작업이 삶을 바라보는 본인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여긴다. 삶에서 자의와 무관하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본인의 반응은 작업에서 드러나는 우연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의 작업이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거나 의문할 수 있는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발견, 수집, 우연, 통제, 한계인식
학　　번 : 2013-21205

목 차

1. 들어가며 ····· 1

2. 작업의 전개 ····· 2

2.1. 발견과 수집 ····· 8

2.2. 계획된 우연 ····· 15

3. 마치며 ····· 32

작품 목차 ····· 34

Abstract ····· 35

1. 들어가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학부시절 진행했던 작업들을 되돌아보면 ‘무언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다.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작위적으로 여겨졌고, 작업 과정을 떠올려 보았을 때, 즐거움보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 즐겁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본인은 대체로 무언가를 채우는 것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다. 하루 일과를 채워 항상 무언가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는 작업에서 뭔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나 욕심을 좀 더 비워내고, 과정상에서 순간순간의 감각에 충실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런 생각은 본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일면 상통한다고 생각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살면서 해왔다고 믿는 일 역시 본인이 그것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일 때가 많다고 여겨졌고, 그렇게 생각하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본인 자신의 의지로 생겨난 일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우연들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경험보다는,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예측하기 어렵게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현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의지와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삶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2. 작업의 전개

물질적인 실험을 하면서 갖는 주요한 태도는, 나를 비운다는 태도이다. 물성이 작업과정에 있어 어떤 문들을 살짝 열어주면 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들 중 내 마음에 비추어 어느 길로 갈 수 있을 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보다는 발견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일면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같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짐작하곤 한다. 이 길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은 모른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행자일 수 있다.

작업 노트 중

작업은 재료가 되는 물질을 다루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물질을 다루는 것은 본인에게 몸으로 직접 감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본인은 장기간 산행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몸에 지고 다닌 경험이 있다. 산에 머무르는 기간과 계절에 따라 무게는 조금씩 달랐지만 대개 20~30kg 정도의 배낭을 메고 산길을 걸었는데, 그 안에는 텐트나 식량, 취사도구와 같이 그 기간 동안의 의식주를 해결할 모든 짐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물리적인 감각으로 전달했다. 삶에서의 단 며칠간을 등에 지고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생각되었던 시간과 생존이라는 관념들이 물리적인 무게를 가진 것으로 느껴졌다. 물질을 대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감각을 준다. 신체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것,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준다고 느껴졌다.

본인은 물질을 다루면서 좀 더 작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우연적인 것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물성을 수용하여 우연성이 본인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작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물질놀이>가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가마에 유리, 흙, 금속 등의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열을 가해보는 단순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작업의 구상단계에서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은 순간순간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했다. 가마 안에서 녹고 굳는 등의 상태변화를 거친 물질들을 확인하면서, 그것들이 보여주는 형태에서 물질의 녹는점, 끓는점 등의 속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다음 실험을 고안하였다. 이와 같이, 물질이 보여주는 반응은 계속해서 실험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 노트는 다음과 같다.

실험1 - 유리: 600도에서 형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유리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흘러내린다. 800도 내외에서도 유리는 젤 상태로 그 묵직한 점도를 유지하다가 900도가 넘어가면 완전히 물처럼 그 결합이 느슨해지고, 1000도를 넘으면 그 느슨해진 액체 상태의 유리는 끓어오른다. 끓어올랐던 유리는 그 안에 공기주머니를 잔뜩 머금은 채 다시 굳어졌다.

실험2 - 흙: 테라코타를 구울 때는 기물을 바짝 건조시켜 그 안에 수분을 다 날려 보낸 후에 구워야 갈라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아예 물 상태에 가까운 흙을 구워 보았다. 고온에서 물이 흙의 결정을 안은 채로 바글바글 끓어오른다. 물이 전부 끓어 사라진 이후에도, 흙은 물과 함께 끓어오르다가 굳어진 어느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한 채 딱딱하게 구워 졌다.

실험 1,2를 통한 실험 3 : 이런 유리와 흙을 같이 구우면 어떨까, 액체 상태가 된 유리와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흙은 그 헐거워진 결속들 사이로 서로의 몸을 허락해주지 않을까. 쇠를 녹여 이러저러한 합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한 몸이 된 새로운 물질이 나올지도 모른다. 흙이 완전히 구워져서 성질이 변화

되는 온도는 900도 이상이고 유리는 600~700도에서 녹으니까 어쩌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흙과 유리가 결합된 물질을 보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물 상태의 흙을 유리병에 넣거나 유리판 사이에 넣은 후 가마에서 온도 별로 구웠다. 결과적으로 유리와 흙은 완전히 섞이지 않았다. 유리가 액체 상태가 되기 전에 흙은 완전히 소성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전에 액체 상태에서 벗어나 고체가 되어버려 유리 입자가 들어갈 틈은 없어 보인다. 다만 끓어오르던 시점의 모습을 간직한 흙물의 거친 질감에 의해 액체 상태였던 유리가 그 표면 위에 단단히 물려 있다. 흙은 흘러내린 유리의 잔해 안에서 끓어오르던 어떤 시간의 모습대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작업 노트 중

본인은 이 작업이 진행되는 양상이 삶의 현 단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작업의 결과를 짐작할 수 없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가마 안을 열 때마다 물질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그 물질들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삶의 단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2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본인은 성인으로써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하고 싶은지에 대해, 어떤 분명한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동시에, 이러한 상태가 현재의 삶의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불확실함을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작업의 결과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을 바라보는 매 순간에 예민해져야만 실험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이후에 진행될 실험을 구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작업에 대한 결과를 성급히 바라지 않고, 가마를 열고 그 안을 바라보는 매 순간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태도이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가 삶의 현 단계에서 느끼는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수용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가마에서 나온 물건들 중 몇몇은 따로 보관하였고, 불필요하다고 여긴 나머지는 폐기하거나 만족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다시 가마 안에 넣어 다른 형태로 변화시켰다. 당시에 수집된 것들은 대체로 질감이나 색감, 표면 텍스쳐 등의 조형적 기준이 본인의 미감에 부합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끓어 오르고 녹는 등의 상태가 변화하는 어떤 시점에서 물질은 굳어졌고, 그렇게 굳어진 형태를 통해 변화의 과정을 역추적해 보는 것은 흥미롭게 여겨졌다.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 물질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저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소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 입자가 입방체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처럼, 그 물질들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움직이는 지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수집되었던 물건들은 당시에는 실험의 결과물로써 의미가 있었을 뿐, 작업으로 결론 지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들로 여겨졌다. 그 이후, 이 오브제들을 작업화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를 통해, 좀 더 적절한 형식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현재와 같은 설치가 이루어졌다. 대개 작업은 일정 시간 동안 숙성되어야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 그 상황과 멀어지고 난 시점에서야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작업을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분명해졌다. 작업을 진행할 당시와 멀어지고 난 어느 시점에 이 물질적인 오브제들을 보았을 때, 당시에 가마 안에서 보았던 물질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투명한 가운데 매일 숙제처럼 가마 안에서 물질을 실험하던 그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본인 자신을 상기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들은 본인에게 초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들을 보면서 작업 진행상의 불확실함을 수용하려 했던 태도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감상과 더불어 이 물건들을 작업화하려고 했던 시도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 오브제들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메타포로 읽히도록 만드는 장치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일종의 수집품으로 여겨졌던 이 물건들이 하나하나 잘 보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열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이후에 진행되었던 작업들에서 보여지는 물질에 환경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 시작된 작업이기도 하였다.

[작품 1] < 물질놀이 > 2013, 혼합재료, 가변설치

[작품 1 세부]

2.1. 발견과 수집

작업에서 우연적인 것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물성을 수용하는 방식이나 이미 기존에 있는 물질적인 대상을 가져와서 작업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이 하는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취하는 수집의 행위와 가깝다고 여겼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작업들은 이러한 '수집'을 통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본인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작업의 초기에는 주로 기존에 있었던 물리적인 대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수집의 대상이 어떤 원리를 포함한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어떤 환경의 풍경을 수집하려는 의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수집의 대상은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선택하여 가져온다는 뜻에서 수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점에서 수집의 행위가 본 연구의 작업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수집의 대상은 대부분 인과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나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낸 현상이었는데, 이는 모두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나온 시간을 짐작해 보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본인은 식물을 비롯한 유기체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그 안에 몰입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모든 유기체의 형태는 그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잘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 얻어진 형태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족두리 꽃이나 무궁화처럼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식물은, 매일 새벽 그날 피워야 하는 꽃을 피우고, 저녁에는 그 꽃이 진다. 한 계절 내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씨방이 열리고 꽃이 피고 진 만큼 줄기는 하늘을 향해 자란다. 족두리 꽃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그 기다란 줄기에 매달려 있는 씨방의 수만큼 해가 뜨고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생명체가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매일 꽃을 피우고 오늘 피운 꽃에서 자신의 절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느꼈다. 이와 유사하게 흔적을 바라보며 이전에 흘러온 시간을 유추하는 것은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것과 같이 별 다를 것 없게 느껴져 주목하지 않았던 과거의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라 여겼다. 이와 같은 감상은 본인으로 하여금 인과관계에 의한 결과물을 수집하는 동력이 되었다.

작업 초기에 물질적 실험의 결과물과 더불어, 스튜디오를 비롯한 작업 공간이나 쓰레기장, 길거리와 같은 생활공간 근처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물건들을 모아두고는 하였다. 그런 면에서, 본인은 본인 자신이 '수집'하는 행위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동일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물질적 실험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사선택에 의한 수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고 수집하느냐'하는 점이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쇳가루>가 이루어졌다. 본인은 금속을 가공하는 공간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조그만 쇳가루 뭉치의 형태에 흥미를 느끼고, 당시에 수집하던 물질적인 오브제들, 실험 결과물들과 함께 작업 공간에 진열해 놓았었다. 그 오브제들은 본인에게 '흥미로운 물건들'이었는데, 오브제의 양이 늘어감에 따라 본인의 미감에만 호소하는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직관적으로 흥미롭다고 여긴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은 그 양이 많아짐에 따라 수평적으로 전개될 수는 있었지만, 수직적으로는 계속 같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본인의 '흥미'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주목하게 하였고, 그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수집하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 하나의 '가장

흥미로운' 오브제만을 선택하여 그것을 분석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단 하나의 오브제를 골라내는 과정은 일종의 소거법[1]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어떤 것을 수집하는 모든 과정이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하게 된 방법이었다. 다시 말해, 본인은 소거법을 통한 선택의 반복 속에서 그 선택의 조건을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쇳가루>는 소거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선택되었던 오브제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금속 가루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속절단기의 날이 금속을 자르는 동안, 마찰에 의해 생겨난 쇳가루가 순간적으로 빨갛게 달아오르며 그 밑에 떨어졌다. 그리고 고속절단기 밑에서 쇳가루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기들끼리 엉겨 붙고, 다시 식으면서 오징어가 불에 구워지듯 형태가 말려 올라갔다. 이 과정은 누군가가 금속을 자르는 시간만큼 반복되었고, 의도치 않게 이 쇳가루가 생겨났다. 당시 이 쇳가루를 분석하여 '어떤 것을 흥미롭게 여겨 수집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언어로 정리되지 못한 채 상당 부분 의문으로 남았지만, 그러한 선택의 과정을 통해, 이 작업이 본인의 '흥미'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물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1) 미지수를 하나씩 소거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미지수의 값을 구한 후 이 값을 역으로 계속 대입하여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것들을 제외하여 선택할 것을 골라내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작품 2] < 쇳가루 > 2013, 쇳가루, 8 cm X 5 cm X 4 cm

<벽>은 <쇳가루>와 같이, 어떤 것을 발견하고 수집하는 행위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작업실 벽면 한쪽은 항상 습기에 젖어있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다. 벗겨지고 있는 페인트 밑에는 그 이전에 바른 페인트가, 그 밑에는 그 이전에 바른 페인트가 층층이 얇은 껍데기처럼 덧씌워지다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진 어느 시점에는 딱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갔다. 그 장면은 벽 위에서 미묘한 음영을 만들면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본인에게 하나의 추상회화처럼 여겨졌다. 다시 페인트가 덧칠해져 그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그 벽의 한 순간을 포착해서 수집해 놓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작업이 제작되었다. 미색의 페인트 층들이 겹겹이 붙어있는 벽 위에 파란색 안료를 섞은 석고를 붙였다가 떼어 내었고, 결과적으로 파란색의 석고 표면 위에 페인트 딱지들이 깊숙이 박혀 한 몸이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벽의 인상이 한 점의 그림으로 생각되었던 만큼, 수집된 결과물을 회화처럼 벽에 거는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벽>은 <쇳가루>와 동위선상에 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두 작업 모두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쇳가루>는 수집한 물건을 그대로 가공 없이 드러낸 작업인 반면, <벽>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안료를 섞은 석고가 수집하려는 대상(벽 위에서 떨어지고 있던 얇은 페인트 층들)과 결합된 형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석고에 파란색 페인트를 섞은 것은 미색의 페인트 층이 좀 더 잘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색깔의 선택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벽>은, 발견되어 수집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쇳가루>와는 달리, 수집된 대상과 함께 그 대상을 보면서 추상회화의 한 장면이라고 느꼈던 감상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대상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결합된 측면은 이후의 작업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의 작업에서 수집된 대상은 물리적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물에 석고가 깎이거나 금속에 녹이 스는 등의 현상을 포함하며, 이러한 현상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에 언급하게 될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작품 3] < 벽 > 2013, 석고에 안료, 130cm X 130cm

[작품 3 세부]

2.2. 계획된 우연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작업은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러한 현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작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①생활 주변에서 발견되는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원리를 적용하여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②설정한 환경에서 물질이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고 기다린다. ③현상의 원리를 중심축으로 놓고,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환경적인 조건을 조정한 실험을 고안한다. ④실험과 관찰의 반복 속에서 나오게 된 실험적 결과물들 중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별한다.

물에 석고가 깎이고, 쇠가 녹스는 등의 물리적 현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본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조건만 주어지면 동일하게 생겨나는 자연 현상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 현상들을 본인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초기에는 이와 같은 방식이 우연적인 것을 수용하는 과정으로만 여겨졌지만,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이러한 우연 자체가 본인의 계획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측면을 의식하게 되었다. 물질의 반응은 때론 예상과 다르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본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계획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실험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질이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양상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 과정 내에서 발견하거나 주목하게 된 측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물질이 보여주는 우연함에 의해 작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이면서도, 동시에 본인이 이러한 우연함을 경험하고 체득하여,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제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녹오름 드로잉>은 쇠가 수분과 반응하여 녹이 스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작업 공간에서 누군가가 버리고 간 쇠 헤라에 석고가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고, 석고가 머금고 있는 수분에 의해 쇠가 산화되어 하얀 석고 위에 누런 녹물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철판에 석고를 얇게 씌우고 그 석고 위에 생겨나는 녹물 자국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필로 따라 그렸다. 석고가 비교적 두껍게 씌워진 철판은 오랫동안 습기를 머금고 있어, 좀 더 오랜 기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녹물 자국이 생기지 않았고, 반면 석고가 얇게 씌워진 경우에는 금방 습기가 사라져 며칠 사이에 작업이 끝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석고 위에서 녹물은 크게 번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녹물을 따라 그리는 방법은 녹물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이 주가 되었지만, 녹물이 생겨나는 형태에 따라 외곽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으로 표시하기 위해 빗금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녹물을 따라 그리는 방법은 녹물이 보여주는 형태와 윤곽에 따라 달라졌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은 여유로운 저녁 시간대인 오후 9시에 항상 녹물을 따라 그리기로 정했는데, 녹물을 그리는 것은 30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위해 저녁 시간대를 항상 비워놓고 비교적 긴장감이 있는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 언제나 정확히 9시 정각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지만, 이 시간에 녹오름을 그리는 것은 일종의 약속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은 물질과 일종의 협업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는데, 본인이 조건을 부여하면 물질은 그것에 반응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갔고, 물질의 그러한 반응에 따라 본인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녹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시점이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렸으며, 결과물에서 작업 과정의 순간들이 한 화면 내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 4] < 녹오름 드로잉 > 2015, 철판에 석고와 흑연, 47cm X 60cm

<물길>은 마당에 무심코 놓았던 석고 몰드가 빗물에 녹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녹은 석고 몰드의 표면에서 물이 떨어졌던 부분은 패이고, 물이 흘렀던 부분은 물이 움직였던 길의 방향대로 석고가 깎여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석고 덩어리를 놓아 이러한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석고가 물에 깎여나가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물이 흐르는 방향, 석고 덩어리의 형태, 물살의 세기 등의 조건들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석고는 석회질의 물질로 비교적 물에 잘 녹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석고가 물에 녹을 때는 돌이나 비누처럼 반질반질하게 뭉개지면서 녹는 것이 아니라, 석고 덩어리 속에 있는 미세한 공기구멍들이 표면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거친 질감을 드러내면서 녹았다. 이 거친 질감에서 물이 흐른 방향이 더 명확히 보여졌다. 그러한 흔적에서 물이 어느 방향으로 떨어졌는지 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흔적은 석고 표면에 균일한 질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질감으로 채워진 단면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물길>이 제작되었다. 흐르는 물에 석고 덩어리가 양쪽으로 나뉘어질 때까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석고 덩어리가 나뉘어질 때까지 대략 1년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석고 덩어리 위에 녹색의 이끼가 생겨나고 그것이 추위에 얼어 죽고, 이듬해 다시 이끼가 생겨날 때쯤에 작업이 종료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석고가 빨리 녹지 않아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잠시 잊혀 졌다가 다시금 바라보는 순간에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어있기도 했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관조하는 태도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흔적이 축적된 석고의 표면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녹오름 드로잉>과 <물길>은 물질이 환경에 반응한 흔적을 물질의 표면에 축적하여 드러내고자 한 작업이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사실은 이전에 존재하였던 어떤 원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모두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부지불식간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에도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수많은 흔적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흔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과거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고, 부재하는 사실로부터 흔적이라는 눈앞의 실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 역시도 어떤 것의 원인이 되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유에서, 펼쳐진 시간 속에 한 점과 같이 여겨지는 흔적을 포착하여 기록해 놓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점처럼 순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본인 자신의 존재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기게 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물리적 사실에서 그 이전에 흘러왔던 시간을 함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순간 속에 조금이나마 펼쳐진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작품 5] < 물길 > 2015, 석고,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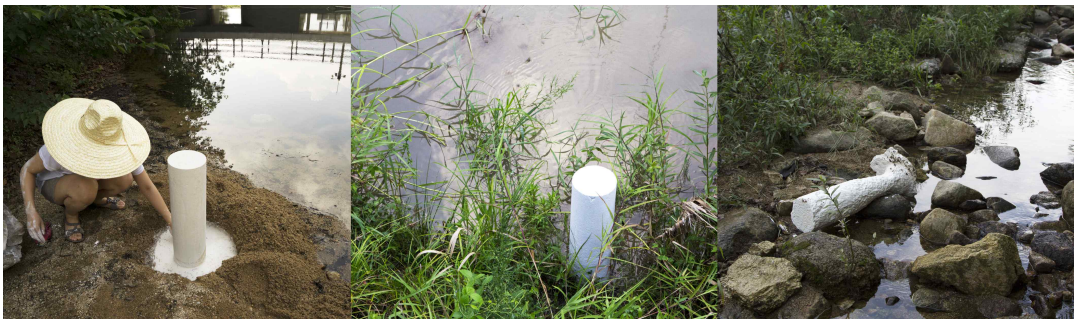
[작품 5 과정 사진]

발견한 현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 이러한 방법이 그 물질적 대상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작업의 방식이 일종의 고정된 문법이 되고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작업에 있어 다시 우연성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작업을 더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상황에 놓기 위해, 외부의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외부 환경은 스튜디오 안에서의 상황과 달리, 날씨나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지형, 기후와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에 더 노출된 환경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물길>에서의 현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실험작 중 하나인 <물길-장마>는 외부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려는 첫 번째 시도로써 이루어졌다. 물의 흐름으로 석고를 마모시키는 <물길>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이를 실행할 공간적 배경으로 생활반경 주변의 개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외부의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서, 개천가의 땅에 석고 덩어리를 심고 장마철에 불어난 유량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장마철에 높아지는 수위가 석고의 몸에 기록되기를 기대하였고 장마철이 지난 후에 석고를 다시 수거하기로 하였다. 석고의 형태는 유량의 변화가 보여질 수 있는 세로로 긴 원기둥으로 선택하였고, 콘크리트로 덮이지 않은 개천 세 군데에 총 20개가량의 석고 기둥을 심었다. 어떤 것은 장마철이 지나면서 소실되었고, 어떤 것은 쓰러져 있었으며, 어떤 것은 거의 깎이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고 기둥을 수거하면서 이 작업에 대한 일종의 목적 상실 상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이 작업이 계획과 실행만 있을 뿐, 대상을 체득하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이전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물질이 드러내는 흔적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석고가 물에 녹는 과정이나 녹물이 생겨나는 과정, 가마 안에서 물질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지켜보았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이 본인과 좀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 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후에 진행될 작업에서는 그 환경에서 직접 대상을 경험하고 그 장소에서 머무르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작품 1] < 물길-장마 > 과정 사진

그러나 <갯벌>을 진행할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이 어렴풋이 느껴졌을 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때문에 [갯벌] 작업 역시 일정부분 이런 점이 개선되지 못한 채로 이루어졌다. 본인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던 갯벌에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놀러 갔던 안면도에서 처음 경험했던 갯벌은 신비롭게 느껴졌다. 갯지렁이가 뻘 위를 기어 다니면서 길을 만들어 내고 있었고 조그만 게들이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구멍 옆에는 그것들이 쌓아놓은 뻘 알갱이들이 쌓여 있었다. 어떤 생물은 뻘 안에서 바깥으로 물을 뱉어냈고, 뻘과 뒤섞여 있던 어떤 생명체들은 외부의 자극에 갑자기 몸을 수축해서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것들이 한데 뒤엉켜 만들어내는 질감은 본인의 머릿속에 생동감있는 풍경으로

기억되었다. 우연히 해안가를 찾았다가 다시 가보게 된 갯벌에서 본인은 기억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 풍경을 다시 접하게 되었고, 그 풍경을 떠내오는 작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갯벌의 풍경을 떠내온다는 생각은 그 풍경을 수집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전까지 진행된 작업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작업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작업에 있어서도 환경 속에 이미 주어진 것을 작업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갯벌 위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질감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을 생활공간처럼 자주 드나들기는 어려웠지만, 3-4주에 걸쳐 주말 동안 갯벌에서 머무르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었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드러나는 갯벌은 햇볕과 공기에 노출되면서 물에 가까운 뻘 상태에서 점점 점도가 굳은 진흙으로 변했다. 뻘은 사방으로 갈라지면서 표면 위에 크랙을 만들어냈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갯벌 표면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조각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

어떤 것을 수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관에 용이하고 오랜 시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수집의 대상으로써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갯벌 조각들을 가마 안에서 구워, 그 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보관에 용이한 형태로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생동하던 갯벌은 정지된 상태로 굳어졌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본인에게 그 공간에 대한 수집품이자, 수집의 순간에 대한 기록물로 여겨졌다. 이는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이나 조약돌을 주워와 보관하면서 때때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작품 6] < 갯벌 > 2015, 갯벌,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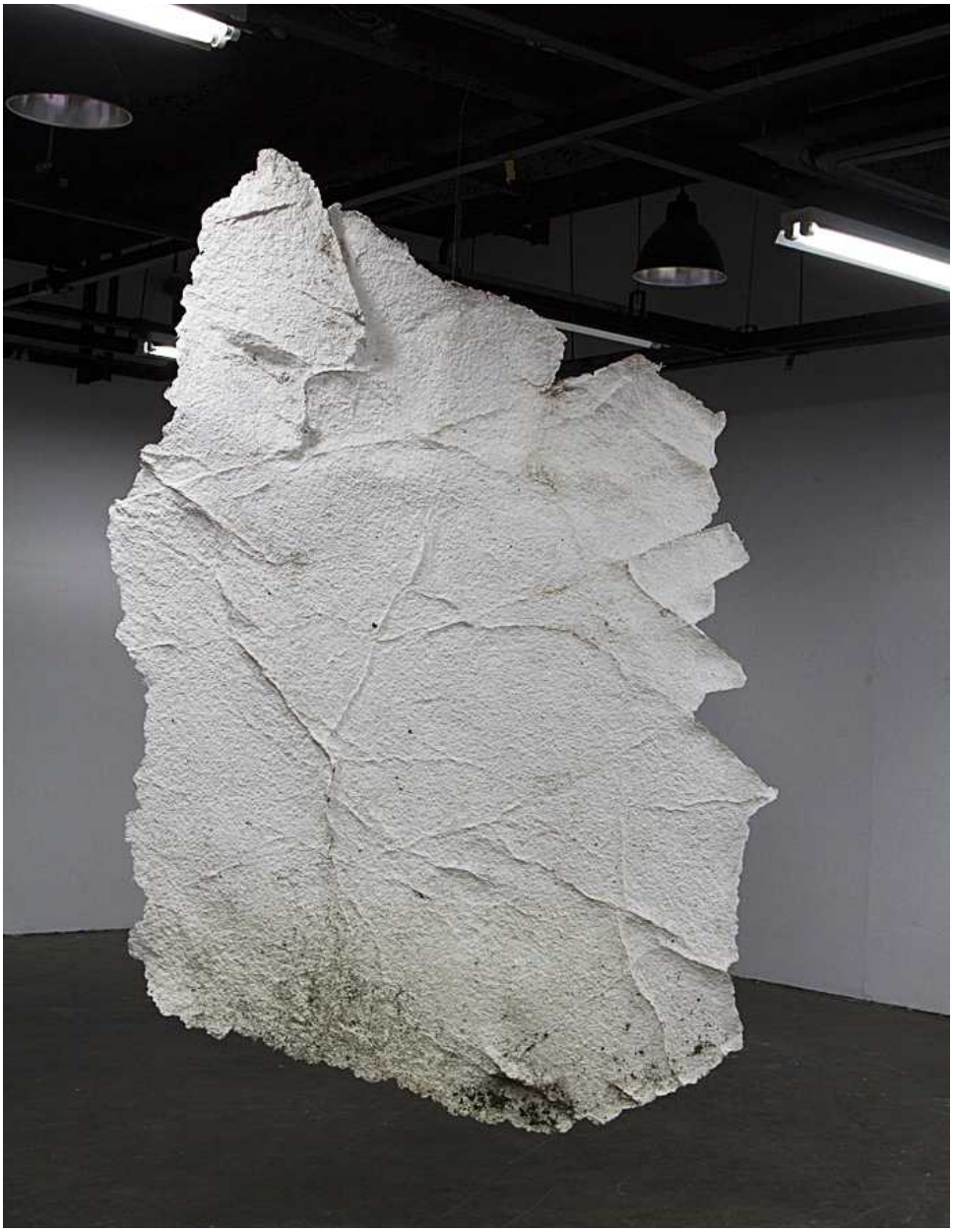
[작품 6 세부]

[바위]는 외부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다른 작업이었다. 그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생활반경 근처에 위치해 자주 갈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본인에게 익숙한 공간인 산을 배경으로 작업 진행하고자 하였다. 산행 중 만나게 되는 바위는 인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작업을 통해 이러한 바위의 모습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산길에서의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직함으로 기억된다. 계절에 따라 초목은 변해도 바위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어, 산길이 낯설지 않은 익숙한 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산을 오르던 그 주변 환경은 기억에 바래져 잊혀져 있는 순간에도, 바위의 모습은 홀로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산에서 마주치는 바위들은 땅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면서 서 있었고, 그것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햇빛의 온기와 거친 화강암질의 표면은 거대한 생명체의 피부처럼 느껴졌다. 본인은 작업에서 바위를 직접 가져오기 보다는 바위의 표면을 떠낸 형상을 가져오고자 하였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바위를 직접 가져오면서 그 환경에 대한 본인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것을 지양하였기 때문이었고, 대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보다 바위의 표면에서 느꼈던 본인의 인상을 담아내는 것에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관악산 자락의 몇몇 군데를 베이스캠프로 설정하고 적합한 바위를 찾았다. 계곡 근처에 위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물을 얻는 데에 어느 정도 용이하면서, 표면에 화강암질의 거친 질감이 살아있고 크랙이 많이 있는 바위를 선택하였다. 산에 다니면서 본인이 배운 것들 중 하나는, 산행을 할 때 그 공간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습관이었다. 이러한 습관은 작업에도 반영되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바위 표면의 요철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종이죽이 재료로 선택되었다. 종이죽은 한지의 원료로 일정 시간 이상 건조되어야 바위에서 떼어낼 수 있었는데, 일조량이 적은 계곡에서 종이죽이 건조되는 것을 기다리며 본인은 그 풍경 내에서 순간순간의 변화를 좀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며 바람이 부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그 순간순간의 감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공간에 대한 이러한 감상으로부터 외부 환경에서 시도하였던 일련의 작업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풍경을 수집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작업에서, 자연적 현상을 포함한 모든 대상을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본인은 환경 내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여 대상을 수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물은 그 환경과는 달리 정적인 상태로 정리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의 환경이 가지는 동적인 느낌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본인에게 다소 불만족스럽게 느껴졌는데, 작업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이 화석처럼 굳어진 결과물에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의 작업이 어떠한 현상을 수집하게 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환경에서 진행된 작업의 결과는 그 풍경의 일부가 가지고 있는 표피적인 부분만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작업에서는 결과물에서의 정적인 상태를 해소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설치 상에서 공간에 한지를 외줄로 걸어 미세하게 흔들리게 설치하였다. 그러나 본 작업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 뒤 그러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해결보다는, 사전에 본인이 경험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과 더불어 그것을 잘 구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에 진행될 작업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개선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7] < 바위 > 2016, 한지, 230cm X 140cm

자연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환경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더 면밀하게 그러한 제약을 체득하여 작업의 형식으로 활용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제약에 따라가다 보니 형식이 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작업을 구현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작업이든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연적 요소를 수용하는 것은 작업의 형식이 한계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체득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의도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본인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작업에서 의도적으로 우연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모든 과정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수용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작업에 의도적으로 우연적인 것을 부여하면서, 본인은 우연적인 대상을 체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본인의 의도 하에서 구현되어야 할 숙제처럼 여겼고,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더 복잡하고 확대된 우연을 작업에 부여함으로써 다시 그것을 필연적 차원으로 구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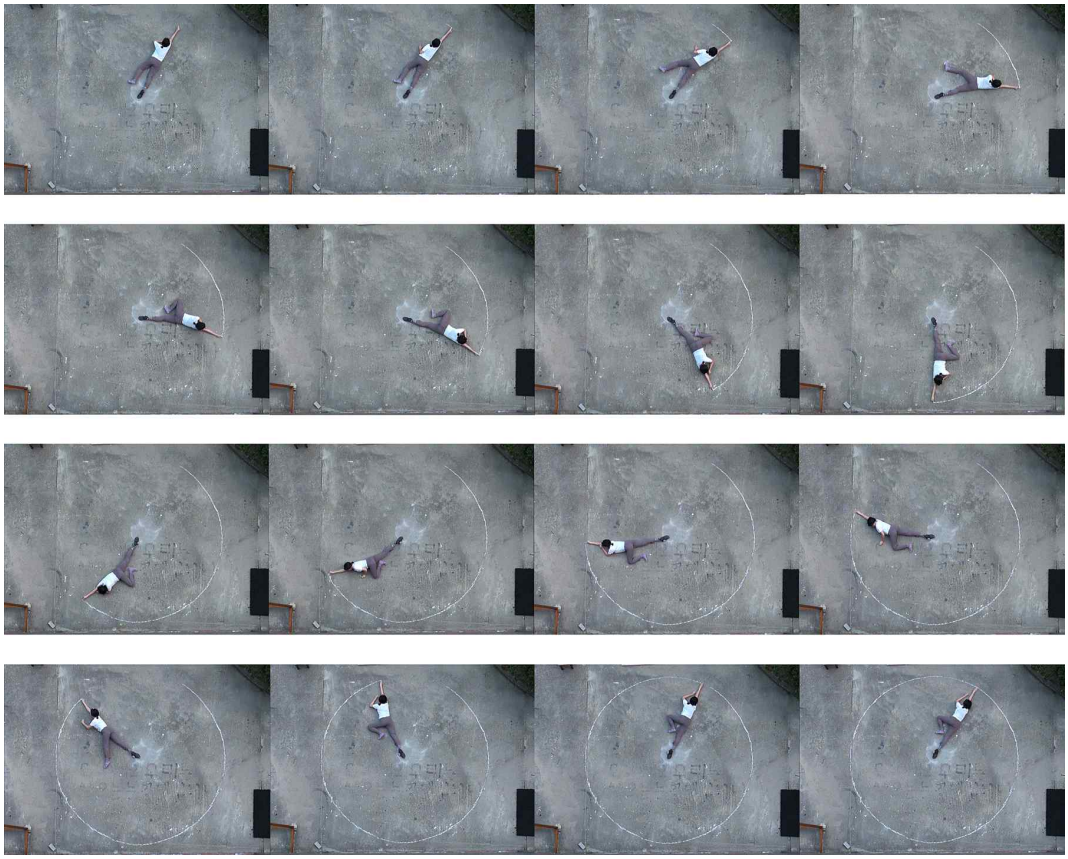
이처럼, 본인은 작업 과정 중 우연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욕구는 우연적인 것을 체득하고 이해하면서 본인의 의도 하에 두는 것으로 일정부분 해소되었다. 여기에서의 해소는 우연성의 원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극복이나, 원인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을 인정하고 체득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작업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본인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그것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우연적 요소에 대한 본인의 한계는 작업을 모색하는 가능성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양상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내가 그린 가장 큰 원>이 이루어졌다. 이미 존재하는 한계로써의 우연을 대하는 본인의 태도를 신체를 통한 행위로써 드러내고자 하였다. 물질을 대하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집중하게 해주었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물질을 들어 옮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물리적 무게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여전히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였다. 도리어, 스스로 그 무게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는 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한계를 계속해서 일깨워주었다. 외부의 환경에서 진행되는 작업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그 환경을 대하는 자신의 몸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리가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뻘을 퍼내는 일이나 재료를 들고 산길을 오르는 일은, 본인의 신체가 작업에서 수용하였던 다른 우연적 요소와 같이 일정한 한계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에서 본인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가장 크고 완벽한 원을 그리고자 하였다. 콤퍼스의 원리와 같이, 바닥 위의 한 점에 엄지발가락 끝이 닿는 부분을 고정하고, 최대한 몸을 길게 뻗어 손이 닿는 가장 먼 지점의 둘레를 그렸다. 원을 그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밀착된 몸의 위치로 인해 자신이 그리고 있는 원의 전체를 바라 볼 수 없다는 점은, 원을 그리는 그 순간의 동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장과 팔의 길이와 같은 신체적 조건과 더불어 최대한의 길이로 몸을 뻗는 동작만이 정확한 원을 그리기 위해 본인에게 주어진 가장 믿을만한 척도였기 때문이다. 어느 한 순간도 최대한 손을 뻗지 않으면 그만큼 원은 찌그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손을 뻗으려고 하였다.

작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함을 담보로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분명한 의도에서 출발한 작업도 진행과정상에서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함은 작업 과정상에서는 혼란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과정의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자신이 그리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가장 큰 원을 그리면서, 본인의 행위가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작품 8] <내가 그린 가장 큰 원> 퍼포먼스, 영상 기록물(20분), 스틸 사진

마치며

본 연구에서 진행된 작업의 흐름 안에서, 우연을 통제하려는 마음과 수용하려는 의도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고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충돌과 갈등도 수용하려는 태도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순이 본인에게 작업에 대해 계속해서 자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연성을 수용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실험의 결과물이 모두 작업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대상을 실험하거나 바라보는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 그러한 대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본인의 의도 하에서 작업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에 대한 감상이 본인에게 각인되었고, 그러한 감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들에 한 해서 작업으로 선별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모든 작업이 충분한 체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소정의 감상을 주었던 작업이나, 의미있는 시도라고 여겨져 작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한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본 논문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본인은 자신과 무관하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사실들 속에서 본인 자신과 유관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우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의 근거는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본인의 인식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 우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작업들은 삶을 바라보는 본인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일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삶에서 자의와

무관하게 이미 주어져 있어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본인의 반응과 작업에서 보여지는 양가적인 태도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업을 통해 이러한 태도와 사고방식을 추적해 보는 것이, 보는 이에게 공감하거나 의문할 수 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우연을 본인의 의도 하에서 수용하고자 노력하며 대상과 부대껴가는 과정 속에서 작업이 본인에게 유의미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과 작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다기 보다는 그 시간만의 충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작업 하나하나가 이후에 진행된 작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본 연구의 작업들이 이후의 작업을 진행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동시에, 이전의 작업들이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좀 더 분명해진 것처럼, 이 작업들도 소급해서 다시 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결과물이기를 바란다.

작 품 목 차

[작품 1] ····· 7
[작품 1 세부] ····· 7
[작품 2] ····· 11
[작품 3] ····· 14
[작품 3 세부] ····· 14
[작품 4] ····· 17
[작품 5] ····· 20
[작품 5 과정 사진] ····· 20
[작품 6] ····· 24
[작품 6 세부] ····· 24
[작품 7] ····· 27
[작품 8] ····· 31

참 고 작 품 목 차

[참고 작품 1] ····· 22

Abstract

Study of Works by Recognition of Limitations through Acceptance of Uncontrollability

Moon, Sujin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intention of excluding contrivance and accepting uncontrollable and unexpected factors. In the process of the works, I discovered the attitude of accepting uncontrollability as well as the desire to control it.

The works in this study were creat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where things already existing are brought. In that sense, my art practices were to select and bring in some of the things found in the surroundings, rather than creating something new. The objects of 'collecting' included existing physical objects, natural physical phenomena, and landscape found in environments.

The works were performed by observing physical phenomena and intentionally inducing the phenomena. Later, to draw more

complicated and extended uncontrollability to the work, I worked out of my studio, outdoors. Initially, I considered such work procedures as a process of accepting uncontrollable and unexpected factors, but I gradually recognized that the uncontrollable and unexpected effect itself was produced according to my intention. The work procedures were not only a process where the direction of the works were determined by the uncontrollable factors that materials or environments have, but also a process where I experienced and learned the uncontrollability and then transformed it in an controllable form. Furthermore, I found that such uncontrollable factors set the boundary and limitations in which I created works and also provided the potential to discover the direction of works. In the entire body of work, I tried to accept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ntion to accept unexpected and uncontrollable factors and the desire to control them, because I believed that such a conflict or collision can provide driving force to continue the works.

I consider my works as reflection of the way of thinking and attitude toward life that I have, because my response to things 'given' to the life, regardless of my will, is similar to the ambivalent attitude toward uncontrollability as revealed in my works. In this regard, I hope that my works can be the objects of appreciation that let viewers understand or question about.

Keywords : discover, collect, uncontrollability, control, recognition of limitation
Student Number : 2013-21205